

## Session 12 새 예루살렘 : 만유의 회복 (계 21-22장) (New Jerusalem :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

### I. 소개

- A. 이 천사의 설명 부분은 새 예루살렘의 생명의 역동적인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에덴 동산이 창조될 때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천년왕국으로 다가오는 새 예루살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통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부활의 생명의 초자연적인 측면이 이 땅에 풀려지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20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행 3:20-21)*

- B. 부활한 성도들인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지만,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천년왕국을 다스릴 것이다. 성도들은 천사들이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가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과 천년왕국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천사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인데, 이는 두 영역 사이의 장막이 걷혀지게 되기 때문이다.
- C. 다섯째 연대기 부분과 이에 뒤따르는 천사의 설명의 주요 주제는 통치이다. 이 부분은 땅을 통치하는 보좌에 누가 있게 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이 땅으로 옮기신 이후에, 예수님 자신은 성도들을 보좌를 앉히시며(계 20:4) 사단의 보좌를 땅에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 후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하실 수 있도록 열방을 준비시키신다(계 21:3).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서 (계 21:3)*

- D. 이 진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를 강건케 함으로 유혹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는 이겨낼 가치가 있다. 음녀 바벨론 종교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따랐기에 영원히 불 못에서 살게 될 것이다. 신부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랐기에,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이다.
- E. 사단과 그의 모든 사자들은 이 땅으로 내어 쫓길 것이며(계 12:9), 사단은 자신의 보좌를 적그리스도에게 줄 것이다(계 13:2). 현재 무저갱에 있는 수억의 악마(귀신)들 또한 풀려나게 될 것이다(계 9:3,16).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고자 할 것이다(계 13:8,12,15). 이로 인해 수십억의 사람들이 사단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며, 사단과 동일한 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 지옥의 씨앗을 에덴동산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이 악의 씨앗들은 대 환란 때에 완전하게 익을 것이다. 이 땅의 어떤 곳은 마치 지옥이 임한 것 같을 것이다(계 12:9; 13:2; 6:8).

## Session 12 새 예루살렘 : 만유의 회복 (계 21-22장)

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 12:9)

2 ... 용(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적그리스도)에게 주었더라 (계 13:2)

- F. 계시록 21-22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위에 임한 지옥”인 적그리스도 제국을 에덴동산으로 교체해버리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에덴에서 일어났던 비극을 뒤바꾸실 것이다. 그분은 사단을 옥에 가두고(계 20:1-3),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도록 하실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천국이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이다.

## II. 하나님의 목적의 핵심 :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합치심

9 그 뜻의 비밀(감추어진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9-10)

- A.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땅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며, 하늘과 땅의 영역을 하나로 합치시는 것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초자연적인 영역을 말한다. 땅은 물리적인 영역으로써 자연적인 현상과 인간의 감성과 물리적인 인지가 완전하게 표현되는 곳이다.
- B.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자연 현상은 중단되지 않으며,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모습처럼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측면이 물리적인 측면 위에 부어짐으로 향상될 것이다(요 20-21장; 행 1장).

## III.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 하나의 보좌의 두 가지 차원(땅/하늘)

- A. 예수님께서서는 재림하심으로 땅의 예루살렘에 자신의 영광의 보좌를 세우실 것이다.

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마 24:31-32)

17 그 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 (렘 3:17)

- B.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는 천년왕국 성전의 지성소와 연결될 것이다.

4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천년왕국 성전)으로 들어가고 ... 6 성전(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 7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 (겔 43:4-7)

- C. 예수님의 보좌는 땅의 천년왕국 예루살렘과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있다.

## Session 12 새 예루살렘 : 만유의 회복 (계 21-22장)

## 3 ...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새 예루살렘) 가운데에 있으리니 ... (계 22:3)

- D. 예수님의 보좌는 하나인가 둘인가? 이는 천년왕국 땅에 있게 되는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가? 답은 그렇다!이다. 그분의 영광의 보좌는 땅과 하늘에 모두 있다. 이는 하나의 보좌가 두 가지로 표현된 것이다.
- E. 나의 의견은,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는 광대한 통치 센터로써 “북쪽 끝은”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고 “남쪽 끝으로는” 예루살렘의 천년왕국 성전에 근간을 두며, 내가 부르는 “영광의 통로”가 두 예루살렘 사이를 잇게 될 것이다.
- F.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로 내려오면서 광대한 “통치 단지”를 형성하며, 이 두 예루살렘은 “영광의 통로”로 합쳐지게 될 것이다. 이 하늘과 땅의 통치 센터는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마 19:28; 25:31)로 불린다. 이는 성경의 예언의 세세한 부분을 고려할 때 나타나며, 이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암시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되는 부분이다. 이는 땅과 연결되는 광대하며 높은 도성이 될 것이다.
- G.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 예루살렘과 연결되며,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 H. 새 예루살렘이 천년왕국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땅에 내려앉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
1. 첫째, 천년 왕국 예루살렘의 크기는 대략  $10\text{mile}^2(25\text{km}^2)$  또는 4,500척 x 4,500척 정도이다(한 척은 대략 10.5피트=3.2m, 겔 48:30-35; 45:6; 48:15-19).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1,380마일(2,200km, 계 21:16) 정도라서, 이는 천년왕국 예루살렘의 면적에 비해 너무 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가 규빗이 아닌 척(10.5피트)으로 본다. NKJV는 규빗(cubit) 단어를 이탤릭체로 표기함으로 이 단어가 원문에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2. 둘째, 땅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온다(계 21:24-26).

24 (천년왕국의)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천년왕국의)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 26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계 21:24-26)

3. 셋째, 새 예루살렘의 의사귀들이 천년왕국의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 존재한다. 천년왕국 땅의 사람들은 치유하는 의사귀를 만질 수 있다(계 22:2).

2 ... 그 나무 의사귀들은 (천년왕국의)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 22:2)

4. 넷째, 천사들이 도성을 지켜서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계 21:12,27; 22:14-15). 천사는 아담이 창세기 3:22-24절에서 범죄한 이후 에덴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켰다.

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 (계 21:12)

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 21:27)

14 자기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5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 22:14-15)

#### IV. 영광의 통로 : 역동적 수렴(하나됨)

- A. 천년왕국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사이에 겹치는 특성은 적어도 12개 정도가 된다. 이 두 도성의 영광의 각기 다른 표현들은 역동적으로 수렴될 것이다. 수렴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하늘과 땅의 측면) 교차점을 향해 다가옴으로 연합을 이루게 됨을 의미한다. 각 부분은 차이점이 있지만 결합되며 겹쳐지며 하나의 연합된 실체를 만들게 된다. 수렴되는 부분은 적어도 12개 영역이 있다 : 1) 산 2) 12개의 문이 있는 예루살렘 3) 하나님의 전(House of God) 4) 지성소들(성전이자 기도의 집) 5) 에덴동산 6) 생명의 강, 7) 생명 나무(12가지 실과들이 달마다 맺히는), 8) 대로, 9) 회오리바람, 10) 영광의 구름, 11) 영광의 향연, 12) 빛나는 불
- B. 예수님의 보좌는 두 예루살렘(천년왕국과 하늘의 예루살렘), 두 지성소(기도의 집), 두 동산, 두 강, 두 나무들, 두 대로, 회오리 바람, 영광의 구름과 불이 역동적으로 수렴되는 위대한 산이자 도성, 전(Mountain-City-House)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 C. 땅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영계와 자연계가 서로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는 장막이 견허짐에 따라 이 땅 위에 열린 하늘이 있게 될 것이다. 천년왕국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영광의 파도는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14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합 2:14)

- D. 야곱은 예루살렘에서 12마일 정도 북쪽에 있는 베델에서, 땅에서 하늘의 문으로 닿는 초자연적인 사닥다리가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목격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이 두 영역 사이의 연결을 밝혀준다.

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 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창 28:12-17)

- E.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3장에서 자연계와 영계가 공존하는 곳에서 아담과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하며 거니셨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이 두 영역 사이에 장막이 형성되었다. 이 도성은 하늘의 초자연적인 측면과 땅의 자연적인 환경을 하나님의 기쁨 아래 합친, 역사상 첫 번째 도시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로서 다스리며, 땅(땅의 예루살렘)에서는 다윗의 자손(Son of David)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 V. 새 예루살렘은 두 단계에 걸쳐 땅으로 내려온다

- A. 새 예루살렘은 두 단계에 걸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첫째,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재림 때에 내려온다(계 21:10). 둘째,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 지구가 불로 깨끗케 되어 새 땅이 되며 영영히 바다가 없게 된 이후에 내려온다(계 21:2).

*10 ...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 21:10)*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 21:2)*

- B. 계시록 21-22장의 구조를 이해함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두 단계를 걸쳐 내려오게 됨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계시록 21:9-22:5절의 일들이 영원한 부분과 일시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천년왕국 때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영원한 상태를 천년왕국 환경과 함께 보고 있는 것이다.

- C. 요한에게 계시록 21:9-10절의 신부와 계시록 17:1-3절의 음녀 바벨론을 보여준 천사는 “동일한” 천사였다. 이 두 환상은 **명확한 삽입 구절**로써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천사가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다. 계시록 21:9-22:5절은 삽입 구절이므로, 이 일은 계시록 21:1-8절의 일(새 하늘과 새 땅 등)의 **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계시록 21:2절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은 마지막 연대기 부분(계 19:11-21:8)의 마지막 사건이다.

*9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10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 21:9-10)*

*1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 3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 (계 17:1-3)*

## VI. 지성소로써의 도성의 모습 : 외형(계 21:9-21)

- A. 도성의 디자인 : 도성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각 변이 20규빗으로써(왕상 6:19-20), 정방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계 21:16).
- B. 도성의 치장 : 도성을 이루고 있는 귀금속 중 8개는 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흉패에 달았던 귀금속(출 28:17-20; 39:10)으로 되어 있다(계 21:19-20).

## Session 12 새 예루살렘 : 만유의 회복 (계 21-22장)

- C. 도성의 영광 : 이 도성은 성전에 임했던 쉼기나 영광(대하 5-7장)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현대의 벽옥과는 다른 고대 벽옥의 광채처럼 밝다(계 21:11,23; 22:5).

*10 ...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계 21:10-11)*

- D. 도성의 건축 : 문(계 21:12b-14), 성곽(계 21:12a,14-18), 기초석(21:12,19-20), 길(21:21; 22:2). 문들이 만일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면 문과 문 사이의 거리는 대략 500마일(800km)로 볼 수 있다.

*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 13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 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다디온(1,380마일 = 2,200km)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정방향) 17 그 성곽을 측량하매 백사십사 규빗(216피트 = 66m)이니 ... 18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 21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계 21:12-21)*

- E. 도성의 크기 : 성곽의 길이와 높이, 너비는 1,380마일(2,200km) 정도이다(계 21:12b-14). 스다디온(furlong)은 그리스 측량 단위로서 600피트(약 183m)에 달하는 거리이다. 우주 공간은 지구에서 **800마일**(약 1,300km<sup>1</sup>) 떨어져 있다. 성곽의 두께는 216피트(66m) 정도이다(계 21:15-17).

## VII. 에덴동산으로써의 도성의 모습 : 내부(계 21:22-22:5)

- A. 요한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에덴동산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도성 내부를 보여준다. 그는 도성의 아름다움과(계 21:22-27) 하나님과 얼굴을 보며 교제하는 삶(계 22:1-5)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성전이 없는(계 21:22; 22:4a) 예배하는 도성이다; 이는 해가 없이도 빛을 내는 도성이다(계 21:23; 22:5); 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통치하는 도성이다(계 21:24,26; 22:3-5d); 이는 섬기는 도성이다(계 21:25b; 22:3c,5a); 이는 어떤 죄도 없는 거룩한 도성이다(계 21:27,8; 22:14-15).

- B. 요한은 도성의 아름다운 빛의 근원을 묘사했다(계 21:23-24; 겔 43:2; 사 60:20).

*23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 (계 21:23-24)*

- C. 도성 안의 생명(계 22:1-5) : 생명수의 강(계 22:1)과 생명나무(계 22:2)는 에덴동산을 가리킨다. 요한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과 12가지 과실이 맺히는 생명나무를 목격했다. 나무 잎사귀들은 열방을 치유한다(계 22:2). 여기에는 어떤 저주도 없을 것이다(계 22:3).

1) 역자주 : 대략 1,000km로 보기도 한다.

## Session 12 새 예루살렘 : 만유의 회복 (계 21-22장)

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 22:1-2)

- D. 성도들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섬기며 거룩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계 22:3-5).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에게 권능과 지혜와 거룩을 부여할 것이다(계 22:5). 성도들은 아무 일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주관하고 있게 될 것이다.

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계 22:3-5)

## VIII. 위대한 왕의 도성 : 천년왕국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마 5:34-35)

2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사 2:2-3)

1 여호와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2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3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한글 KJV :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4 왕들(천년왕국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이며 5 그들이 보고 (새 예루살렘이 천년왕국 예루살렘과 연결된 것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6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7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8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9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10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시 48:1-10)

1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2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3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시 50:1-3)

7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7)